

학문적 지식과 문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고고학 분야에 정진하는
강봉원(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동문.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



서울캠 총학이 내세운 주요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살펴봤다.

2023년 9월 4일 월요일

대학주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소동 일어나

학교 커뮤니티에 9월 1일 오후 5시 멀티미디어관(멀관)에서 불이 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이에 지난달 31일 오후 8시경 멀관 앞에 소방차와 경찰차
노윤지 기자 yoonji2022@knu.ac.kr

국제총학 탄핵부결 100일 후, 남은 과제는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nu.ac.kr

【국제】 문정식(중국어학 2018) 총학생회장(회장)이 우리신문을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장을 밝혔다. 지난 6월 9일 탄핵 투표가 부결돼 문 회장이 임기를 유지하게 된 지 약 100일 만이다.

우리신문은 축제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으나 문 회장은 지난달 4일 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문 회장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개인으로서 대답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무응답에 대한 답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사과했다.

문 회장의 탄핵을 소추하게끔 한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전 회장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을 관통하는 전 전 회장의 A업체 재직 여부에 대해 문 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사실 확인을 하고자 연락했지만 본인이 맞다, 혹은 아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전 회장 역시 5월부터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문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문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진정을 접수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문 회장은 지난 6월 7일과 7월 17일 두 차례 출석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문 회장이 사퇴 의사를 변복하고 임기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문 회장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았기에 끝까지 맡은 바를 다해 2학기 축제와 남은 사업을 잘 준비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학생회칙과 투표 결과에 의거해 회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1학기와 같은 과오를 바로잡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문 회장이 논란 이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7월 22일 ‘종강파티’ 행사 개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총학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고, 대행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지만 학생지원센터와 견적서 등을 공유하며 진행했다”고 준비 과정을 밝혔다. 중운위의 대체 행

사 진행 반대에 대해서는 “축제 예산을 끌어 쓰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며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학기 축제는 9월 19일부터 22일 까지 나흘간 예정됐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1학기에 편성했던 예산이 이월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학교로부터 그때그때 따내는 식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축제의 경우 학교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기에 예산액을 잘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학기 축제 대행업체 임찰은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지난달 4일 공고됐다.

한편 중운위는 문 회장이 사퇴가 아닌 탄핵을 당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문 회장의 탄핵을 소추했으나 결과적으로 해임을 막아선 모양새가 됐다. 중운위 소속 공과대학 고영윤(정보전자신소재 공학 2017) 학생회장은 지난 7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이 판단해 탄핵이 무산됐기에 단과대학 회장으로서 총학에 협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문

제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다시 공론화가 될 것이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 회장은 “탄핵안 발의의 근거가 기만과 업무 태만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중운위와의 향후 협력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사령

면 〈편집장〉
이동건(행정학 2021)
〈서울뉴스팀장〉
정다연(국어국문학 2021)
〈국제뉴스팀장〉
최예령(한국어학 2020)
〈미디어팀장〉
홍지민(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
〈기획팀장〉
이지수(미디어학 2020)

명 〈편집장〉
이지수(미디어학 2020)
〈서울뉴스팀장〉
박상희(미디어학 2021)
〈국제뉴스팀장〉
박서현(철학 2022)
〈미디어팀장〉
정혜원(국어국문학 2021)
〈기획팀장〉
김동희(미디어학 2021)

학위수여로 전달받은 4년의 결실

곽다은 기자 kkyu1109@knu.ac.kr

【서울】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김수빈(국어국문학 2019) 씨가 도전과 극복 표창자로 선정됐다.

선정 방식은 학사지원팀에서 각 단과대 측에 추천 요청 후 선발했고, 경희 정신에 맞는 도전과 극복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점, 성적, 학교 생활 충실성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도전과 극복 표창은 코로나 이후 지난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부터 수여하기 시작했다.

도전과 극복 표창을 받게 된 김씨는 이번 결실에 “후련하고 뿌듯하다”며 “돌이켜 봤을 때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대학 생활 동안 과 학생회, 단과 대 성평등 위원회,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및 회칙TF, 선거운동, 행진, 기자회견 등 가리지 않고 학생 자치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나약함과 자신에 대한 낮은 신뢰가 있었지만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앞으로 대학원 진학 계획을 언급하며 원하는 공부를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학부 학위증 대표 수여자로 선정된 진성민(야과학 2018) 씨는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는데, 그 결실이 과분한 자리로 이어져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4년 동안 학과 학생회부터 밴드 동아리 노래여울, 봉사활동까지 많은 활동을 했던 진 씨는 동기와 후배, 약제학실 대학원 선생님, 동아리 부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졸업자 수가 적은 후기 학위수여식은 총장상 대신 도전과 극복 표창만 전달하고 있다.